

싹! 박물관에 암호가 숨어 있어요

박물관이야기 지음



주제	전통 문양과 우리 문화 이해하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5~6 학년
관련 주제어	전통 문양, 문화, 박물관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2-01]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6국02-02]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미술 [6미01-03]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6미02-05]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작성	창원 하북초등학교 조소영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박물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유물에는 문양(무늬)이 들어 있다. 이런 문양들은 단순히 외양을 꾸미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조상들이 유물 속에 담은 또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유물 속에 전통문양이 품고 있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박물관의 모든 유물들이 건네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의 전통문양에는 옛사람들의 소망이 그대로 담겨있어 ‘전통문양’을 보기만 해도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모습을 읽어낼 수 있기에 ‘전통문양’은 우리 문화를 해석하는 암호이기도 하다. 그 암호를 알면 어느 박물관을 가더라도 유물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아래 이 책은 기획되었다.

전통문양의 암호를 풀기 위해 전통문양이 가장 잘 드러난 민화(조선민화박물관), 자수(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정영양자수박물관), 도자기(경기도자박물관) 분야의 박물관을 골라 ‘전통문양’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유물과 호흡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끌고 있다. 이처럼 주제를 잡고, 주제와 연관된 박물관을 찾아가는 박물관 관람법은 글로벌박물관시리즈의 색다른 시각이기도 하다.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박물관을 찾아가는 ‘주제로 박물관 보기’는 요즘 중요시 되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박물관을 소개할 때마다 딱 맞는 빛깔의 옛이야기를 들려주어 아이들의 시선이 흥미롭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박물관별 현장활동지를 수록하여 읽은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도, 박물관에 가서 관람을 마치고 알게 된 것을 신나게 풀어낼 수도 있게 했다.

이 책을 읽고 직접 박물관에 찾아가면, 엄마는 기다리고 아이들은 박물관에서 수업을 받는 현장학습 사교육 이상의 효과를 거두리라 확신한다. 엄마 아빠와 함께 주제를 찾아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박물관 현장학습의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는 책이다.

■ 학습 목표

-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전통문양의 의미를 이해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 전통문양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전통문양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
-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루어 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다. 또한 한 사회의 생활양식과 관습, 규범, 가치, 전통을 포함한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인식하고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다.

〈박물관 시리즈〉로 엮어진 『숫! 박물관에 암호가 숨어 있어요』에서는 전통문양을 주제로 우리 문화를 살펴본다. 전통문양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고, 박물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통문양을 민화, 자수, 도자기로 분류하여 알려준다.

책을 읽으며 전통문양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조상들의 삶과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와 닿기를 바란다. 더불어 자신의 삶이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스스로 우리 문화를 이어나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수업 준비물

책, 학습장 또는 메모지, (선택활동) 색연필, 사인펜, 바느질 도구, 찰흙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책과 만나기 - 표지 살펴보며 생각 나누기 - 책 내용과 제목 예상하기	1차시
읽는 중	책 내용 파악하기 - 내용 확인하기 -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요약하기) - 함께 이야기 나누기	3차시
읽은 후	나만의 문양 만들기 (선택활동) - 소원아 이루어져라! (소원을 담은 문양 꾸미기) - 실과 바늘의 마술쇼 (생활용품에 자수 놓기) -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만든 그릇에 이름 붙이기)	2차시

읽기 전

1. 책과 만나기

■ 표지 살펴보며 생각 나누기

- (책 제목을 가리고 표지를 보여준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을 함께 살펴봅시다.
- 표지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예: 바탕이 빨간색이에요.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꽃이 보여요.
 사슴과 새 같은 동물이 있어요.

■ 책 내용과 제목 예상하기

- 표지에 나온 그림들을 살펴보며 읽을 책의 내용을 예상해봅시다.
 예: 호랑이가 나오는 옛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 일 것 같아요.
 전통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 선생님이 보여주는 두 가지 암호를 보고 책 제목을 찾아봅시다.

암호1)

호 숨 에 관 있 암 박 요 어 물 섯 가 어 !

암호2)

스 ㅏ | ! 비 ㅏ 기 ㅓ 기 ㅓ ㅏ ㅏ ㅇ ㅓ ㅇ ㅏ ㅓ ㅇ ㅓ 기 ㅏ ㅏ ㅓ ㅓ ㅓ ㅓ ㅇ ㅓ ㅓ | ㅓ ㅇ ㅓ ㅇ ㅓ

예: 섯! 박물관에 암호가 숨어있어요.

- 박물관에 어떤 암호가 숨어 있는지 책을 읽으며 함께 찾아봅시다.

읽는 중

1. 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언어, 문양’(8~9쪽)을 읽고 내용 확인하기

- 문양을 쉬운 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 무늬라고 해요.
-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물방울 무늬, 꽃 무늬, 하트 무늬, 체크 무늬 등
- 우리 주변에서 무늬가 사용된 곳을 찾아봅시다.
예: 옷, 양말, 가방, 학용품, 이불 등
- 사람들은 언제부터 무늬를 사용했나요?
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찢던 빗살무늬 토기에도 무늬가 있다고 했어요.
- 사람들은 왜 무늬를 사용했을까요?
예: 멋지게 보이려고요.
의미를 담아서 뜻을 전하려고요.
- 전통문양은 무엇인가요?
예: 지역, 나라마다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무늬요.
- 전통문양은 주로 어디에 쓰였나요?
예: 옷, 장신구, 신발, 모자, 그릇, 도자기, 그림, 가구, 건물, 계단, 대문 등
- 무늬에는 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 오복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복을 담고 있어요.
오래오래 부자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요.(수복장녕)
인격을 갖추는 것이요.(유호덕)
하늘이 내려준 날까지 사는 것이요.(고천명)

■ 전통문양의 의미 알기

- ‘전통문양 소개마당’(10~21쪽)을 읽고, 짝과 함께 다섯 고개 놀이를 해봅시다.

〈다섯 고개 놀이〉

1. ‘가위바위보’로 문제를 내는 사람과 문제를 맞히는 사람 정하기
2.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전통문양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질문에 알맞은 답을 알려준다.
3. 다섯 가지 힌트만 듣고 문제의 답을 알아맞혀야 한다.

예) 1.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 동물입니다.

2. 걸어 다니나요? 날 수 있나요?

- 걸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로 살아있나요? 상상의 동물인가요?

- 상상의 동물입니다.

4.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하나요?

- 아니요.

5. 궁궐에서 많이 쓰는 무늬인가요?

- 예.

(정답) 봉황

■ ‘민화, 그림으로 꾸는 꿈’(22~55쪽) 읽고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주제	쪽수	알게 된 내용
민화?	24~27 쪽	
대문은 우리가 지킨다	32~39	
사랑방에서 피어나는 출세의 꿈	40~47	
행복을 꿈꾸는 안방	48~50	
잔치 잔치 열렸네	51~52	
조상과 신을 모시다	53~55	

■ ‘자수, 실과 바늘의 마술’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자수란 무엇인가요?

예: 옷감이나 헝겊에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그림, 글자 등의 무늬를 넣는 것이예요.

옷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장식을 하던 기법이에요.
 높은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데에도 이용되었어요.

- 전통자수에 쓰인 문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구름, 해, 물결, 꽃, 나무, 글자 등

-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에서 자수를 찾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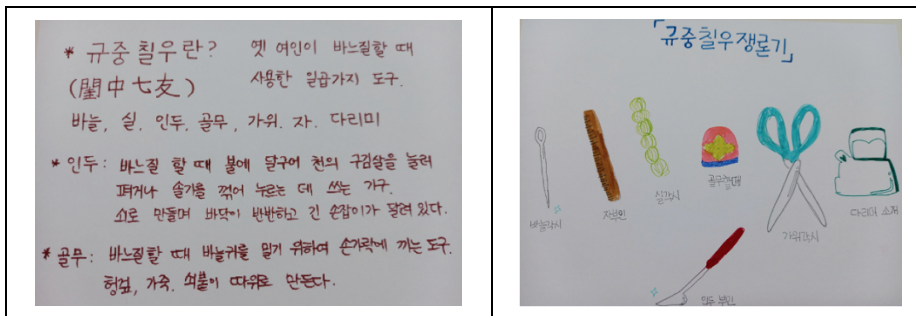
예: 모자나 티셔츠에 자수가 있어요.

청바지에 자수가 있어요.

한복에 자수가 있어요.

- '규중칠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자들이 자수를 놓았어요. '규중'은 여자가 지내는 공간인 안방을 뜻하고, '칠우'는 바느질을 할 때 필요한 도구 일곱 가지를 친구로 표현한 말이에요.

- 72~75쪽 '규중칠우 이야기'를 읽고, '칠우'에 해당하는 도구와 쓰임새를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 '자수, 실과 바늘의 마술' (76~97쪽) 읽고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주제	쪽수	알게 된 내용
돌 북	76~77	
아이 옷	78~79	
흔레복	80~81	
장신구	82~83	
관복	84~85	
병풍	87	
보자기	88	
용포	90~91	
흉배	92~93	
흔레복	94~96	

■ ‘도자기, 가장 오래된 발명품’(104~105쪽) 읽고 이야기 나누기

- 도자기란 무엇인가요?

예: 도기(질그릇)와 자기(사기그릇)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흙으로 빚은 뒤에 뜨거운 불에 굽는 그릇이에요.

- 여러분은 도자기를 본 적이 있나요?

예: 박물관에서 도자를 본 적이 있어요.

-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도자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예: 그릇, 뚝배기, 꽃병, 옹기, 컵, 화분 등



- 도자기는 이런 생활용품 외에도 어떤 곳에 사용된다고 했나요?

예: 반도체기계, 첨단의료기기, 우주선까지도 사용된다고 했어요.

■ ‘도자기, 가장 오래된 발명품’ (108~141쪽) 읽고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주제	쪽수	알게 된 내용
도자기의 탄생	108~109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	110~111	
도자기를 만드는 흙	112	
도자기 구분	112~113	
도자기 이름	113~114	
도자기 만드는 과정	115~123	
고려청자	126~130	
분청사기	131~133	
백자	135~141	

읽은 후

1. 나만의 문양 만들기 (선택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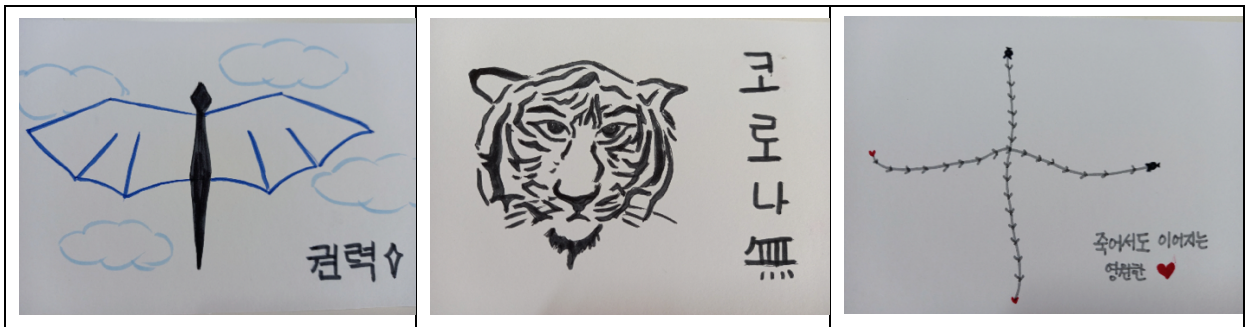
■ 소원이 이루어져라! (소원을 담은 문양 꾸미기)

- 책 속에서 전통문양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을 문양에 담아 그린다고 했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요?

예: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서 나만의 문양을 꾸며봅시다.
- 완성한 문양을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 실과 바늘의 마술쇼 (생활용품에 자수 놓기)

- 자수는 바늘 한 땀 한 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 속에서 나온 수놓는 과정과 자수 기법을 참고로 하여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자수를 놓아 꾸며봅시다.

- 어떤 생활용품에 자수를 놓을 수 있을까요?

예: 티셔츠, 손수건, 머리 핀 등

- 자수를 놓은 생활용품의 용도에 어울리는 자수 무늬를 생각해봅시다.

예: 엄마가 쓰실 손수건에는 꽃무늬 자수를 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할머니가 입으시는 옷에 장수를 의미하는 무늬를 넣은 자수를 놓아 드릴 거예요.

- 자수를 놓기 전에 바느질 도구와 바느질의 종류 및 전통자수 기법을 살펴보고, 기초 바느질과 자수를 연습해봅시다.



〈바느질 도구 소개〉

오누의 소소한 바느질공방



〈기초바느질 종류〉

퀼트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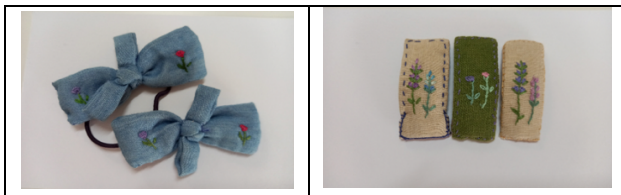
〈전통자수기법〉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 내가 놓은 자수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봅시다.

예: 오래된 리본에 자수를 놓아서 머리끈을 만들었어요.

자투리 천 조각에 자수를 놓아서 브로치를 만들었어요.



■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만든 도기에 이름 붙이기)

- 찰흙 놀이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찰흙으로 명절 음식 만들기를 해봤어요.

여름방학 숙제로 찰흙으로 동물 만들기를 해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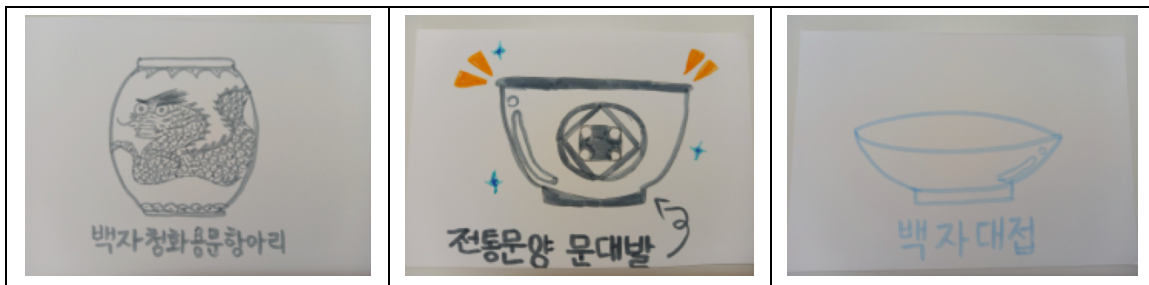
박물관에서 도예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 흙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양, 넣고 싶은 무늬를 직접 정해서 작품을 만들어봅시다. 작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작품의 모양을 구상하고 무늬에 따라 이름을 붙여봅시다.

예: 저는 하얀 항아리 모양의 그릇에 푸른색 용 그림을 그려서 '백자청화용문항아리'라고 할 거예요.

저는 전통문양을 넣어서 국그릇을 만들고 '전통문양문대발'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아무 무늬 없는 접시를 만들고 '백자대접'이라고 할 거예요.



-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봅시다.

예: 제가 만든 접시는 '백자매화문대접'이에요.

제가 만든 것은 '새 모양 토우'예요,

저는 문양 틀을 찍어서 '압출양각접시'를 만들었어요.

